





제23차 한국어언어문화전공 졸업생 초청 취업특강



○ 주최 :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한국어언어문화전공			
○ 주관 :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한국어언어문화전공 커뮤니케이션팀 / 학생회			
○ 일시 : 2025년 05월 22일(수요일) 16:00-18:00			
○ 참여대상 : 한국어언어문화전공 재학생(다/부전공 포함) 및 상명대학교 재학생			
○ 장소 : 송백관 502호			
○ 참여방법 : 온라인 줌 화상회의 및 강의실 참석		한국어언어문화전공TV	
○ 줌 접속링크 : https://us06web.zoom.us/j/83314233928?pwd=MxGBHZGOBcCFebbBn4hPbMDMB7EEzY.1 - 회의 ID : 833 1423 3928 / 암호 : dc37Pa			
○ YouTube 스트리밍 접속 링크 : https://www.youtube.com/channel/UC3WLP1wgs6aA99hdbvXFEQ			
○ 사전 질문 조사(URL) : 추후 통보			

23차 한국언어문화전공 졸업생 초청 취업특강 일정 및 순서

- 주최 :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한국언어문화전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주관 :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한국언어문화전공 커뮤니케이션팀 / 학생회
- 일시 : 2025년 5월 22일(수요일) 16:00-18:00
- 참여대상 : 한국언어문화전공 학생(다/부전공 포함) 및 상명대학교 학생
- 장소 : 송백관 502호
- 참여방법 : 온라인 줌 화상회의 및 강의실 참석


한국언어문화전공TV

- 줌 접속링크 : <https://us06web.zoom.us/j/83314233928?pwd=MxGBHZGOBcCFebbBn4hPbMDMB7EEzY.1>
 - 회의 ID : 833 1423 3928 / 암호 : dc37Pa
- YouTube 스트리밍 접속 링크 : <https://www.youtube.com/channel/UC3WLP1wgs6aA99hdbvXFEQ>
- 사전 질문 조사(URL) : 추후 통보

15:3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줌 화상 회의 점검 및 접속 상태 확인, 강의실 점검 ▪ 강의실 참여 인원 접수
사회 : 김지윤(한국언어문화전공 교수)	
16:00-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 개회사 ▪ 강연자 소개
사회 : 김지윤(한국언어문화전공 교수)	
16:10-1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등단 시인, 편집장 선배가 말하는 문학의 현장” — 김호성(한국언어문화전공 07학번) — 월간 <현대사> 편집장
17:1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 / 응답
18:00-1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 및 사진 촬영

■ 한국언어문화전공 졸업생 초청 취업특강(2020~)

일 자	강연자(학번)	소 속	직 위	특강 주제
20.06.01.	남송이(06)	NSI스피치면접학원	대표원장	취업사례 탐색(1)
20.06.08.	김지운(98)	넥서스출판	편집팀장	취업사례 탐색(2)
20.06.15.	이재학(96)	상명대학교 계당교육원	조교수	취업사례 탐색(3)
20.06.22.	홍광선(06)	SM C&C	차장	취업사례 탐색(4)
20.11.04.	장보미(03)	㈜팜스킨	HR팀 CHO(이사)	스타트 기업 관련 취업
20.11.11.	신형순(02)	한식진흥원 한식문화관 교육사업분야	과장	한식 분야(문화) 관련 취업
20.11.18.	한현수(05)	엘지 유폴러스 천안지사	정직원	통신사 관련 취업
20.12.01.	김한솔(09)	라오스국립대학 비엔티안 세종학당	파견강사	한국어 교육 관련 취업
21.04.06.	남송이(06)	NSI스피치면접학원	대표원장	"나"로 스펙만들기-면접에서 이기는 법
21.04.27.	김지운(98)	시대교육 취업출판부	수석팀장	출판 에디터의 일과 취업
21.05.11.	한정희(96)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강의전담교수	한국어 교사의 길
21.05.25.	강태영(99)	메이트커뮤니케이션즈	제작6팀국장	계속하는 힘
21.10.12.	이경민(05)	ILLUMIN CREATE	대표	"드라마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세요"
21.11.09.	강경은(99)	한겨레신문사 편집국 교열부	교열전문 기자	"정연한 세계 만들기"
21.11.23.	김병규(99)	㈜ SEOLBOM	대표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입학 후 20년 그리고 [브랜딩]"

22.04.11.	남송이(06)	남송이스피치면접학원	원장	"스피치는 스펙이다"
22.05.18.	신형순(02)	한식진흥원 경영지원팀	팀장	"채용환경 변화 속의 취업전략 세우기"
22.10.06.	김선진(18)	교유서가 전략마케팅부	사원	"출판 마케터 A to Z - 출판사 입사를 위한 스펙"
22.11.01.	김혜진(16)	굿모닝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단독] 정치부 기자, '취업 수첩' 공개"
23.04.07.	김수형(09)	일진그룹 인사팀	사원	"국문인으로서 채용담당자로 가는 길"
	박종욱(11)	Bmsmile 제휴사업팀	팀장	"선배가 들려주는 사회 Story"
23.05.11.	홍광선(02)	메조미디어 크리에이티브팀	팀장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23.11.21.	손보규(04)	충남 일자리진흥원	선임연구원	어느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이야기
	한예림(17)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과정	대학원 진학 준비부터 생활까지
24.05.21.	한현수(05)	LG 유폴러스(본사) 영업추진팀	선임	취업 후 본인의 성장 : 취업이 끝이 아니다.
24.05.22.	장 건(16)	전) KTV 국민 방송	방송작가	"하이~ 큐!" 생방송 작가 입문기
24.10.07.	한상은(18)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한국어진흥과	연구원	대학원에서 취업까지 - Standard but Special
24.10.28.	이소현(15)	(태국)송글라 나카린 대학교 한국어과	강사	태국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장
25.04.10.	조수영(16)	BGF리테일 서북지역부 서북영업1팀	주임	"안녕하세요 점주님!" - 영업관리 직무 입문기
25.05.13.	정영준(05)	㈜LG유폴러스 커뮤니케이션센터 홍보담당 언론홍보팀	선임	"결과 이미지로 소통하는 키워드 : 국문과 출신의 기업 홍보 실무 이야기"
25.05.22.	김호성(07)	월간 『현대시』	편집장	"등단 시인, 편집장 선배가 말하는 문학의 현장"

“등단 시인, 편집장 선배가 말하는 문학의 현장”

강연자 : 김호성 (한국언어문화전공 07학번)

- ▶ 월간 『현대시』 편집장
 - 2015년 『현대시』 등단
 - 시집 『적의의 정서』(2022)
 -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졸업



월간 <현대시> 편집장

강연 개요

- 시의 효용에 대해
 - 시를 왜 읽는(쓰는) 걸까?
 - 작품 읽기
 - 시전문지 월간 <현대시> 소개

강연 일정 및 주최

- 주최 :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한국언어문화전공 /
- 주관 :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한국언어문화전공 커뮤니케이션팀 / 학생회
- 일시 : 2025년 5월 21일(수요일) 16:00-18:00
- 참여대상 : 한국언어문화전공 학생(다/부전공 포함) 및 상명대학교 학생
- 장소 : 송백관 502호
- 참여방법 : 온라인 줌 화상회의 및 강의실 참석
- 사전 질문 조사(URL) : 추후 통보

상명대 한국언어문화전공 특강

5/21(수) 16:00-
07학번 김호성



• 약력

- 2015년 『현대시』 등단
- 시집 『적의의 정서』(2022)
-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졸업 (07학번)
-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졸업
- 월간 『현대시』 편집장

<표 3-36> 평균소득 낮은 직업 50개

직업명	(단위: 만 원)				응답자 수 (명)
	평균	25%	50%	75%	
자연및문화해설사	1,078	700	1,000	1,300	30
시인	1,209	200	600	2,000	30
소설가	1,283	500	950	1,200	30
연극 및 뮤지컬배우	1,340	600	1,000	1,800	30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	1,373	1,000	1,200	1,700	30
방과후교사	1,647	1,440	1,575	2,000	30
영화배우 및 탤런트	1,709	1,000	1,800	2,000	32
모델	1,813	1,500	1,900	2,000	30
가사 도우미	1,850	1,500	1,800	2,400	30
통계·설문 조사원	1,863	1,200	1,500	2,000	29
곡식작물 재배원	1,864	500	1,500	2,500	30
이용사	1,927	1,800	2,000	2,300	30
검표원	1,987	1,500	1,850	2,400	30
홍보 도우미 및 관측원 (나레이터 모델 포함)	2,060	1,800	2,000	2,200	30

1. 시인은 연봉 순위에서 **최하위권**.
2. **전업시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
3. 시인, 평론가 등은 시와 병행할 수 있도록 **여러 직업**을 동시에 가짐.
4. 교육자, 출판 편집자, 방송작가, 기자, 작사가 등등..

→ **문학의 효용은 무엇일까?**

최기성, 이은수, <<2018 한국의 직업정보>>, 한국고용정보원, 2019.



구현우 시인
구태우 작사가

길을 따라 차를 몰아 목적은 없지만
푸른 신호 날 이대로 이끄는 중이야
돌이킬 수가 없이 네게 매혹돼
나쁜 방향 좋은 결말 복잡한 기분이야
무의식 그 안에서 하나의 지도를 그리고
날 부르는 초록빛 그 끝에 혹시
네가 서 있나 또 발을 돌려 난
일부러 멀어진 이 방향조차 틀린 것 같아
널 향해 갈 뿐이야
늘 익숙한 왼쪽 길
그곳을 향했던 이유는 단 하나
내 마음과 반대 길
그곳을 간대도 이유는 너 하나
- 샤이니, <Drive> 부분

Oh Boy Oh Boy
Oh Boy Oh Boy

Oh Boy 날 비춘 햇빛
Oh Boy 모두 네 눈빛
Oh Boy 넌 너무 눈이 부셔 Hey
Oh Boy 컷가에 살며시
Oh Boy 달콤한 목소리
Oh Boy 잠든 날 깨워준 너 Eh

배운 적 없었던 말로 입을 열고
오직 널 담으려 감은 눈을 뜨고
나조차 정말 몰랐던
날 발견한 걸 Yeah
- 레드 벨벳, <Oh Boy> 부분

시의 현실

하루는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야. 여기 서점인데 네 시집 없대. **네 이름 말하니까 텔런트 김민정이 언제 시집도 냈냐고 그래.** 나는 출판사 이름을 말해주고 시집코너로 다시 가보라고 했다. 코너라고 할 것도 없어, 여기 시집 몇 권 꽂혀 있지도 않다니까. 그래도 인천에서는 나름 유서 깊은 서점이었다.

몇 해 전 한 출판사에서 시집 시리즈를 기획하고 편집하는 일을 맡았다. 밤낮없이 시집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 한 달이 멀다 하고 신간을 펴 냈다지만 문학을 중심으로 삼는 회사가 아닌 탓에 종종 많은 이들과 부딪쳐야 했다. 하루는 한 마케터가 회의 중에 내게 물었다. **시집, 꼭 그렇게 하셔야 겠어요? 재고 때문에 창고가 난리예요. 대체 팔리지도 않는 걸 왜 이렇게 내는지 원.** 곳곳했던 허리가 풀어지면서 일순내 하이힐이 비칠, 했다. **모든 책은 다 한편의 시거든요. 참나,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시는 무슨 시요, 돈도 없어 죽겠는데.** 존댓말을 유지하던 평정심이 무너 지면서 순간 내 입에서 반말이 가래처럼 튀어나갔다. **야, 너 어차피 죽을 건데 살긴 왜 살아.**

- 김민정, <각설하고>, 한겨레출판, 2013, 47-48쪽.

‘시는 왜 안 읽히나?’ —이것은 진정한 시인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기삿거리에도 웅색한 저널리즘의 문화면이 구색을 채우느라고 주기적으로 들먹거릴 문제도 아니다. 하물며 시를 쓴다는 사람들이 행사를 빙자해서, 매스컴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지극히 경박한 일이다. **예술의 권위는 탈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박탈당한 일도 없다.** (1967. 8)

- 김수영, <새삼 문제된 '독자 없는 시'>, <<김수영 전집 2 산문>>(1981),
2018(3판), 민음사, 661쪽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 / 문학사회학 - 김현문학전집 1』, 문학과지성사, 1991, 40-50쪽.

아무짝에도 써먹지 못하는 것을 무엇하려고 하느냐? 그 질문은 아직까지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힌다. 아무짝에도 써먹지 못한다! 중세기처럼 문학을 이해하는 것이 권력에 가까이 가는 길도 아니며, 몇몇의 날렵하고 재치 있는 수필가·작가들이 비록 그들의 저술로 치부를 하였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학을 해가지고 아무나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식민지 치하의 몇몇 작가들처럼 모두들 지사(志士)로서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문학을 한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할 만한 가치를 그 자체 내에 갖고 있는가? 문학이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비난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제시한다.

확실히 문학은 이제 권력에의 지름길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써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그 써먹지 못한다는 것을 써먹고 있다. 문학을 함으로써 우리는 서유럽의 한 위대한 지성이 탄식했듯 배고픈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며, 물론 출세하지도, 큰 돈을 벌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대체로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억압한다. 유용한 것이 결핍되었을 때의 그 답답함을 생각하기 바란다. 억압된 욕망은 그것이 강력하게 억압되면 억압될수록 더욱 강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억압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 실상 “문학은 치유도 환후도 대안도” 아니지만 “고통이 있는 곳이 또한 문학”이라는 말은 고스란히 문학이 그 자체로 증상임을 지시한다. 문학이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에 가하는 어떤 능동적 작용이 되기보다는 “함께 오래 앓는 것 이상이지 않다”는 것 역시, **정확히, 문학이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과의 동일시임을 지시한다.**

- 조강석, 『틀린의 기동』 문학과지성사, 2021, 128쪽.

→ 문학은 어떤 고통을 직접 치유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증상으로서 앓는 것은 가능하다.

- 백은선 시집, 『도움받는 기분』(문학과지성사, 2021)
- 백은선의 시적 화자는 ‘세계’와 ‘직접 대면’한다. **고통받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함.** 처절한 비유들 많음.
- 자신의 상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왜 이렇게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글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할까?** 자기 자신이 받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닌 듯함.
- 시인이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 결혼 생활에서 느낀 고통, 이혼 사건 등이 생생히 서술된다. 그러나 시인은 단순히 그러한 아픔을 극복해 냈다는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고통을 낱알이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치부까지도 망설임 없이 드러낸다.**

너희가 보낸 발신자 없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미칠 것처럼 무서웠다. #죽어. 죽어. 죽어.# 문자들. 책상을 찾아 교실 맨 뒤에 놓고 엮드려 있으면, 너희는 키득거리면서 웃었지.

- 「도움 받는 기분」 부분

- **고통의 현시, 재현. 고통받는 '나'를 적극적으로 드러냄**

매일 일기를 썼지. 아,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는. 토마토가 익는 동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동안.

- 「키를 찾아라」 부분

- 마치 일기를 쓰는 듯한 시. 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
- **고통을 '시'로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내 눈이 커지네
나는 본다네

거대한

협곡을

...(중략)...

2019년 7월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의 이혼 서류를 접수함

미취학아동 부모 교육을 받음

2019년 8월 5일

- 「졸업」 부분

- 이혼에 관한 시. 여기서 '눈'은 목격자, 증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허물어지고 채워지고 그런 방식으로 영영 헐러버리는 하나의 몸

- 「해피엔드」 부분

세계의 비밀에 가까워질 수도 없는데

끝없이 두들긴다

단단해질 것도 없는데 두들긴다

단련..... 단련..... 단련.....

- 「클리나멘」 부분

천국은 단련의 흔적이었고

그곳에서 밥을 먹었다

- 「우리가 거의 죽은 날」 부분

나는 이렇게 하여 한 편의 작품을 마음 내키도록 다 쓰기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시 고쳐 쓰기를 되풀이 하는 것이다.**

...(중략)...

이러한 고쳐 쓰기가 어느덧 나에게서 큰 쾌락이 되어 있다. 이러한 되풀이를 계속하는 동안에 나는 **고쳐 쓰면 고쳐 쓸수록 그것이 더 나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다시 써 나가노라면 최초로 의도했던 거와는 전혀 혹은 다소 다른 작품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 전봉건, 「고쳐 쓰기 되풀이」(『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1)

- 고쳐 쓸수록 더 나아지는 세계. 시쓰기란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고쳐 쓰는 일.**

이제 나는 순서를 바꾸어서 **‘시에게 속는 방법’**을 먼저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에게 속기 위해서는 특별히 주의해서 알아두어야 하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엇이란 이를테면 **속임을 당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속는다는 일**입니다.

- 전봉건, 「시인과 독자의 광장」(『자유문학』, 1957.9)

즉 시가 우리와 대하면서 지니는 **‘속임수’와 더불어 즐거울 줄 알아야 한다는 일**이 우리가 **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멋지게 감상할 수 있기 위해서 스스로 필요로 하는 ‘시에게 속는 방법’인 것**입니다.

- 같은 글

- 속임을 당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나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시에게 속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속임에 의한 착오, 착각이 아니라 세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즐거움’** 힘이 된다.

삼성역을 지나갈 때

이쪽 빌딩에 나타났던 택시가 사라졌다가 저쪽 빌딩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나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달려가면서,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우회전을 하면 다리를 건너는데.....

백미러 속으로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다.

깨진 유리 속이면 사람은 한 명으로도 군중을 만든다. 인간은 끝나지 않는다.

— 신용목, 「우리 모두의 마술」 부분

- “깨진 유리 속”이라는 속임수의 세계. 그것은 인간 한 명을 군중으로 만들며, 그러한 시적 상상은 인간을 끝나지 않게 한다.

왜 5백년 전의 정몽주의 암살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일제때 당한 요꼬하마 헌병대에서의 고문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가? 의미 있고 없음을 누가 가리는가? 나에게서 내가 당한 고문이 훨씬 더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객관성이라는 어떤 역사적 미명 아래 뭉개지고 만다. 그 객관성이라는 것은 누가 또 가려내는가? 나에게서 어디가서 호소할 방도도 없어진다. **나라는 개인은 역사로부터 완전히 소외된다.** ...(중략)... 내가 잘 아는 누구는 일제 때 모범적인 친일파였는데도 해방이 되자 재빠르게 애국자로 둔갑하더니 나중에는 정부요직에까지 오르게 되어도 아무도 탓하지 않았다. ...(중략)... 문학에서는 그 의미의 차원이 정몽주와 내가 다를 수가 없다.

역사가 의미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이념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정몽주가 김춘수보다는 이념에 더 가까우니까 의미의 비중을 그쪽에 더 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문학은 다르다. 문학에서의 의미는 이념이 아니라 리얼리티다. 리얼리티는 정몽주에게도 있고 김춘수에게도 있다. 그 점에서는 동격이다.** 문학의 주제로서 그 무게가 예수쪽에 더 있고 유다 쪽에는 전연 없거나 있더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볍다고는 할 수가 없다. **예수와 유다 사이에도 정몽주와 김춘수 사이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김춘수, <역사는 어디에 있는가?>, <<처용단장>>, 미학사, 1991, 174-176쪽.)

나는 한국말이 서투른 탓도 있고 신경질이 심해서 원고 한 장을 쓰려면 한글 사전을 최소한 두서너 번은 들추어 보는데, 그동안에 생각을 가다듬는 이득도 있지만 생각이 새어나가는 손실도 많다. 그러나 **시인은 이득보다도 손실을 사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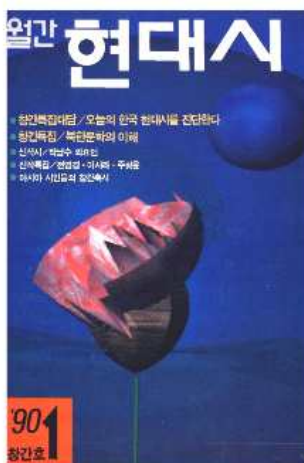
- 김수영, <시작 노트 4>, <<김수영 전집 2 산문>>(1981), 2018(3판), 542쪽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이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딴 데에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 김수영, <절망>

월간 현대시 연혁

- 1990년 1월호 창간.
- 창간 10주년 기념 <현대시작품상> 제정. 2025년까지 26회째 시상.
- 1998년 국내 최초 <영상으로 보는 한국의 시인들> 제작 방송. (한국 대표 시인 26명을 매주 1명씩 6개월 방영), 비디오 출시.
- 1999년 최초의 음반시집 <사이렌 사이키> 제작 발표.
- 2014년 12월호로 통권 300호 발간.
- 2020년 1월호 창간 30주년 기념호 발간.
- (창간 30주년 기념 연속기획 : 2010년대 후반기 한국시의 새로운 흐름)
- 2023년 4월호로 통권 400호 발간 : 현재 2025년 5월호(425호)



현대시 창간호
(1990년 1월호)



현대시
(2025년 5월호)

- <현대시>는 1990년 1월호 창간 이후 35년 동안 **한 번의 결호 없이** 한국 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월간지입니다.
- 창간 초기부터 **구상, 김춘수, 이형기, 이승훈, 김남조, 홍윤숙, 황현산, 최승호, 김혜순, 정과리** 등의 한국 시단의 증추적인 문인들이 참여하여 <현대시>의 지면을 열었습니다.
- <현대시>는 **매월 신작시와 기획특집을 포함하여 약 30여 편 이상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 시단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시인, 평론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편집 및 구성

* 현대시 목차(2024년 6월호)

현대시



기획공 / 아직 오지 않은 사랑이야기들
 기획비평 / 공안 · 76
 개론이후의 시 / 술의 정음 연리 / 김민희 / 81
 김남조 시 / 82

신작특집
 양정민 / 숲을 온인 우주까지 시어 시대 · 21
 유재영 / 물이 어떤 시간엔 / 김민희 / 26
 양유진 / 불꽃의 정지 / 28
 이만승 / 봄날이 / 32
 강태성 / 생기가 보일때 / 34
 두희성 / 문 밖 있는 여인 / 40
 이은규 / 귀뚜라미 / 44
 김민 / 무등산 나무 아래 / 49
 함보서 / 조조아 / 52
 조장구 / 낙방 / 58
 김은숙 / 달산도 / 62
 최정민 / 달산도 / 62

장편시의 (시해) / 김은숙 · 68
 최정민 / 달산도 / 62

이달의 시壇을 전망



3월 / 시壇 전망 · 106
 이은경 / 3월을 전망 · 106

커버스토리 / 최정민
 김민 / 개황에서 세상의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 116
 최정민 / 시인이 되기 전에 읽어야 하는 시 / 124

번화가 선정인 이달의 시인 / 정과리
 최정민의 지시 / 130
 시인의 조건 / 정과리 / 137
 신화의 실종 / 최정민 / 147

현대시 시론 / 이형기 / 157
 최정민 / 157

최정민 / 157

- ▶ 한 호에 신작특집 12명, 평론가 5명 이상, 이달의 시인, 이달의 시 현장점검 좌담, 커버스토리, 기획특집, 연재 등 월간지만이 가능한 다채로운 지면을 제공합니다.



문채연



오성국



김아상



신동국



한채연



기혁

현대시 신작특집

2025년 5월호



구현우



김병상



임유정



문은성



나지한



김봉환



현대시가 선정한 이달의 시인 김지윤

현대시 2025년 1월호
이달의 시인

“ 1 이달에서 한창 읽었어 ”

니는? 앞으로? 뭘 쓰게 될지……?!

”

박지일 · 박다래 · 최선교(사회)

- 1. 이달에서
- 2. 이달의 시집
- 3. 이달의 시집 이유

최선교 : 안녕하세요, 5월부터 박다래, 박지일 시인과 함께 피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시회를 맡은 최선교입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 드디어 한일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기다리던 불이 미르소 시작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남은 일이 여럿이 많지만, 그간 추운 풍경을 통과 마음으로 겪은 모든 관철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반가운 시기에 두 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된 일 역시 정말이 기쁘고 기대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작네셨나요, 간단한 소개도 부탁드려요.

* 김복희, 신홍제(사회), 「한나라의 시인들」, 2023년 봄호, 신화에서 인용.



▲ 2023년 7월 14일 피담 전담자 회의장

박다래 : 안녕하세요, 박다래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엔 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의견을 통해 담기게 됐다니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동안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진행했던 코너에 비해 부족한 시간이 도움이 될지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특별한 활동을 하는 시인들의 진작 시를을 읽어보며, 풍시대 시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혼란스러운 시국이지만, 그렇수록 시를 통해 어디에 가 닿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 : 글썽, 저는 첫 번째 시집을 준비하며, 주 2일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기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자랍니다. 글을 쓰

신화에서 인용함

현대시 2025년 5월호
좌담



10) 2023년 제24회 현대시작품상 시상식 시상장면



박지일 시인



박다래 시인



최선교 시인



김복희 시인



2023년 제24회 현대시작품상 시상식
월간 현대시 특별상 / 현대시 신인추천작품상 시상식

2023년 7월 14일 서울 신화에서 진행함

2023년 제24회 현대시작품상 시상식 시상장면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한국언어문화전공